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예·디자인학 석사 학위논문

행위의 흔적을 담은  
금속 오브제

- 표면 부식과 입체 도형의 변형을 중심으로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금속공예전공  
오나은

행위의 흔적을 담은

금속 오브제

- 표면 부식과 기본 도형의 변형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민복기

이 논문을 공예·디자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금속공예전공  
오나은

오나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원장 신자경 (인)

부위원장 백경찬 (인)

위원 민복기 (인)

## 국문초록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변화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관찰하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이러한 변화의 순간을 흔적으로 기록하고 그 과정을 금속 장신구와 오브제에 담으려고 시도하였다.

변화에 관한 이론적 조사는 일반 철학과 현상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에서 모든 것이 고정적이지 않고 지속해 변화한다는 주장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이 변화가 새로움, 다양성, 그리고 성장을 가져온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의 섭리이며 살아있음의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예술 창작물은 예술가의 주관적인 경험을 반영하고,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존재와 경험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 이렇게 현상학적 관점은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유대를 형성하며,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연구는 변화의 상징을 도식화하여, 부식한 판을 종이에 찍어낸 판화와 그 판을 접거나 말아서 입체의 형태로 가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금속을 접거나 말게 되면 작업 초반에 부식했던 문양 일부를 가리게 된다. 따라서 부식한 전체 문양의 흔적을 판화로 남기고 변화된 모습을 기본 입체 도형인 정육면체와 원기둥의 변형으로 형상화하였다. 이 연구가 변화의 기억을 간직하고 공유하는 방식의 예술 작품을 제안하고, 추상적인 개념의 예술 표현 방법이 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 변화, 흔적, 부식, 판화, 금속 접기, 금속 말기

학 번 : 2020-25495

## 목 차

I. 들어가는 말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II. 변화를 탐구하기 .....	4
1. 변화에 대한 고찰 .....	4
2. 변화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 연구 .....	9
III. 변화의 흔적 및 축적을 표현하기 .....	13
1. 지난 행위의 흔적 남기기 .....	13
2. 흔적 기록하기 .....	31
3. 입체 도형 변형하기 .....	46
IV. 맷음말 .....	76
참고문헌 .....	77
Abstract .....	81

## 그림 목차

[그림 1] 찻잔	6
[그림 2] 어린 아이	9
[그림 3] 강아지	9
[그림 4] 영화 보이후드	10
[그림 5] 베토벤	11
[그림 6] Richard Long, <A Line Made by Walking>, 1967	12
[그림 7] 가로형 부식통과 설치된 공기 펌프	14
[그림 8] 세로형 부식통	14
[그림 9] 부식액 속 공기 펌프 활용	15
[그림 10] 부식액 염화제 2 철	16
[그림 11] 결정체가 생긴 부식액	16
[그림 12] 자수가 새겨진 망사 레이스 천	19
[그림 13] 삼베 천	20
[그림 14] <Ruff Tuff III>의 DLC 코팅 전	23
[그림 15] 다양한 응용한지	24
[그림 16] 금속에 소프트그라운드를 바른 뒤 질감지를 위치시킨 모습	25
[그림 17] 롤프린팅하는 모습	25
[그림 18] 노출된 질감이 부식된 후	25
[그림 19] 장시간 부식으로 벗겨지는 금속 표면	26
[그림 20] 단계별 부식	26
[그림 21] <Vase I, II>의 세부	28

[그림 22] 사진을 흑백화 시킨 이미지	29
[그림 23] 사진에 하프톤 기능을 적용한 이미지	30
[그림 24] 변형된 정육면체 사례 연구	46
[그림 25] 변형된 정육면체 실험 1	47
[그림 26] 변형된 정육면체 실험 2	47
[그림 27] 변형된 정육면체 실험 3	48
[그림 28] 클램프로 고정한 모습	48
[그림 29] 변형된 정육면체 실험 결과물	49
[그림 30] 변형된 정육면체 실험 결과물	49
[그림 31] <Growing>의 작업 과정	50
[그림 32] <Growing>의 작업 과정	51
[그림 33] <Growing>의 작업 과정	51
[그림 34] <Growing>의 세부	53
[그림 35] 두루마리 문서	62
[그림 36] 3 롤형 수동 슬립 롤링 머신	63

## 표 목차

<표 1> 드로잉 부식의 부식 전과 후	17
<표 2> 자수 천 패턴 부식의 부식 전과 후	20
<표 3> 코팅 실험	61

## 작품 목록

[작품 1] <Ruff Tuff I>	18
[작품 2] <Ruff Tuff II>	21
[작품 3] <Ruff Tuff III>	22
[작품 4] <Vase I, II>	28
[작품 5] <Trace I>	33
[작품 6] <Trace II>	33
[작품 7] <Copper Brooch I>	34
[작품 8] <B. Brooch I>	35
[작품 9] <Stainless Steel Brooch I>	37
[작품 10] <Stainless Steel Brooch II>	37
[작품 11] <Fade Away Series I_1>	38
[작품 12] <Fade Away I_2>	38
[작품 13] <Fade Away I_5>	39
[작품 14] <Fade Away I_4>	39
[작품 15] <Fade Away I_3>	40
[작품 16] <Fade Away Series II_2>	40
[작품 17] <Fade Away Series II_1>	41
[작품 18] <Fade Away Series II_3>	42
[작품 19] <Vase III>	43
[작품 20] <From The Beauty>	44
[작품 21] <Vase IV>	45

[작품 22] <Growing> .....	52
[작품 23] <B. Brooch I> .....	55
[작품 24] <Fade Away Series I_1, 2> .....	56
[작품 25] <Fade Away Series I_3, 4> .....	57
[작품 26] <Fade Away Series I_6> .....	58
[작품 27] <Fade Away Series I_5> .....	59
[작품 28] <Copper Brooch I> .....	65
[작품 29] <Fade Away Series II_1> .....	65
[작품 30] <Trace I, II> .....	66
[작품 31] <Trace III> .....	67
[작품 32] <Fade Away Series II_2> .....	68
[작품 33] <Fade Away Series II_3> .....	69
[작품 34] <Stainless Steel Brooch I, II> .....	70
[작품 35] <Vase III> .....	71
[작품 36] <From The Beauty> .....	72
[작품 37] <Vase VI> .....	73
[작품 38] <Vase IV> .....	74
[작품 39] <Vase V> .....	75

# I. 들어가는 말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πάντα ρεῖ」

“모든 것은 흐른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강조하였다. 변화가 만물의 본질이고 그대는 그저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고 말하였다.]<sup>1)</sup>

이 연구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는 변화에 민감하다.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나 자신과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했고, 변화하고 있다. 변화는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어쩌면 개개인의 변화는 성장이고 성숙이다. 부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닌 마음이 자라고 넓어지는 과정이다.

당연하면서 예상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누구든지 겪는 변화의 경험들이었다. 이 연구는 사람들 간의 사소한 감정 변화, 소모 등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사람들 간의 미묘한 감정선에 대해 항상 집중해왔다. 경험의 부족해서, 순수해서, 기대가 많아서 실망하고 상처받는다. 질병과 죽음 또한 친밀한 관계 사이 속에서 크게 다가왔다. 감정의 이면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삶의 단계마다 쌓이는 경험들이 적층되면서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존재한다. 이러한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며, 변화에 적응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더욱 성숙한 존재로 성장시킬 수 있다.

나는 순수한 금속 판재를 부식해 층을 차례대로 깎고 덜어내며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들을 기록하려 하였다. 부식되어 없어지

---

1) 오쇼 강의, 『서양의 봇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태일소담, 2013, p.347-349.

는 패턴을 보면서 지난날 순수했던 선택과 그에 따른 경험도 점차 침식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한 변화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화기법을 사용하였다. 금속판은 판화로 찍고 입체 가공을 하게 되면 다시는 원래 판 형태로 되돌아올 수 없다. 대량 생산의 목적을 가진 판화가 판의 형태적 변화로 인해 일시적이고 한정적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이 변화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진리에 적용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금속 판재를 깎음으로써 과거의 행위 및 경험을 덜어내고 그로 인해 나타난 변화의 흔적을 기록하고 축적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II장 1절에서 먼저 연구 주제인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작업의 배경이 되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불완전함에 대한 개인적 고찰로 시작하였다. 1항에서는 작업의 영감이 된 변화에 대한 철학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빌려 모든 것이 불변적이지 않고 지속해 변화한다는 주장을 시간과 변화 중심으로 살펴보았다.<sup>2)</sup> 2장에서는 또 다른 철학 연구의 철학운동 중 하나인 현상학의 개념을 소개하고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변화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어서 현상학적 관점에서 예술 작품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II장 2절에서는 이러한 추상적인 이야기를 시각화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양한 예술 분야와 더불어 영감의 중심인 일상생활에서의 사례를 분석하고 관찰하였다. 이러한 고찰과 사례를 작업의 이론적 배경으로 참고하였다.

III장에서는 각 작품이 지닌 변화의 이야기를 담는 방법을 사용한 기법으로 나눠 설명하였다. 작업 과정을 부식 - 판화 - 금속 입체 가공 순서로 나눠 서술하였다. 1절에서는 지난 행위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로서 부식기법을 연구하였다. 부식 과정과 그 특징을 서술하고 사용한 재료에 따라 부식 방법을 분류한 후 각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2절은 흔적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판화를 연구하고 제작 과정과 판화의 작품 연구로 구성하였다. 3절 입체 도형 변형하기는 금속 판재에서 정육면체와 원기둥의 변형인 결과물 형태에 도달하게 된 과정과 영감에 관하여 서술하였고, 각 형태가 담고 있는 의미와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

2) 오쇼 강의,『서양의 봇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태일소담, 2013, p.356.

## II. 변화를 탐구하기

시간에 따른 변화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겪는 현상이다. 나는 사람이 겪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로 인한 인간의 불완전함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행위들로 인한 또 다른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었다.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나에게 변화는 언제나 과정이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II장에서는 이러한 변화 과정을 철학과 현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예술 표현의 주제가 된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변화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았다.

### 1. 변화에 대한 고찰

#### 1.1. 철학적 고찰

앞서 언급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다. 그는 그 어떤 것도 안정되거나 머물러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sup>3)</sup> “생성, 변화”를 중요시한 철학자이다.

우리는 같은 강물 속에 발을 담그지만  
같은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그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아무것도 머물지 않는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차가움은 따스함이 되고, 따스함은 차가움이 된다.  
젖은 것은 마르고, 마른 것은 젖게 된다.

병이 있기에 건강이 유쾌하고,

---

3) 오쇼 강의,『서양의 봇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태일소담, 2013, p.355.

악이 있기에 선이 유쾌하다.<sup>4)</sup>

(이하 생략)

그의 변화에 대한 철학은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서 의미, 언어, 인식, 존재의 차원에서도 변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그는 변화라는 개념을 단지 물리적인 상태의 변경이 아니라, 의미가 변화하고 언어가 변화하고 인식이 변화하고 존재가 변화하는 등 더 넓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의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그대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죽음처럼 보인다.  
흐름만이 존재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가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서늘한 바람조차, 따스한 기운마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매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sup>5)</sup> 그는 모든 것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며, 항상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 그의 관점에서 변화는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으로서, 불변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시간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고 훌러가는 존재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내밀지 못한다"<sup>6)</sup>라는 유명한 말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고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말하는 변화는 아름답다. 변화가 있어 지겨움이 없고 새로움과 다양성이 생긴다. 또한, 변화로 인해 어려움과 도전, 실패와 성공을 경

---

4) 오쇼 강의 『서양의 봇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태일소담, 2013, p.347.

5) 오쇼 강의, op. cit., p.346-361.

6) 오쇼 강의, op. cit., p.357.

험하고 배운다. 이는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 자연의 섭리인 변화로써 생기는 인간의 불완전함은 계절과도 같고 좋은 일처럼, 살아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진다. 또 그것이 자연스럽다.

### 1.2. 현상학적 고찰

현상학이란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 관념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달리, 관념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사태 그 자체를 바라보기를 요구하는 학문이다.<sup>7)</sup>



[그림 1] 찻잔  
(출처: <https://maisondesilk.com/>)

예를 들어 우리가 찻잔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찻잔의 ‘이미지’를 통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찻잔 그 자체를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sup>8)</sup>는 것이 현상학적 관점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지향성이라는 개념은 내가 찻잔이라는 대상을 실재하는 대상으로 규정해주는 체험을 가리키는 말이다.<sup>9)</sup> 나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7) 김정주,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 '있는 그대로'를 주목하라」,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2000, p8.

8) 김정주, op. cit., p.8.

존재하는 찻잔을 ‘지향하여’ 의식함으로써 비로소 그 물건과 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된다.<sup>10)</sup>

현상학적으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대상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는지와 변화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를 이해하면, 변화의 본질과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 서설에서 정신이란 “스스로 다른 것이 되는 운동, 즉 자기 대상이 되는 운동이다.” 또한, 그는 ‘현상학’은 “의식이 이루는 경험에 대한 학<sup>學</sup>”이라고 말하였다.<sup>11)</sup>

헤겔은 여기에 나오는 ‘다른 것 *Anderssein*’을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 서먹서먹해지는 ‘소외’라 파악하고, 소외태를 두루 거친 다음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모든 과정을 스스로의 ‘소유’로 삼는 것을 ‘경험’이라고 부른다. 의식이 더듬어가는 ‘길’은 여기에서 하나의 원환을 이룬다. 하나의 원환 안에서는 아는 것과 그 대상 사이에 대립이나 분열이 생기는데 이를 ‘부정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정’은 결코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결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양극을 운동으로 통합해가는 원동력이라고 헤겔은 말한다.<sup>12)</sup>

현상학적 관점에서 예술 창작물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술가는 창작물을 만들면서 그 안에 자신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반영한다. 이러한 반영은 창작물 자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가의 의도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예술 창작물은 그 안에 존재하는 현상을 통해 인간의 경험과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예술 창작물이 인간의 존재와 경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된다. 이를 통해 예술가와 관객이 공유하는 경험은 존재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나누는 과정이

---

9) 김정주, op. cit., p.8.

10) 김정주,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 '있는 그대로'를 주목하라」,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2000, p8.

11) 와시다 기요카즈, 『사람의 현상학: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문학동네, 2017, p.7.

12) 와시다 기요카즈, op. cit., p7-8.

라 할 수 있다.

또한, 예술적 창작물은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이는 예술가의 개인적 경험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성이 오히려 창작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가의 주관성이 곧 창작물의 독특성이 되고, 이러한 독특성이 예술가와 관객 간의 유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

13) Galen A. Johnson, 「Merleau-Ponty's Philosophy of Expressionism: Lawrence Hass, "Merleau-Ponty's Philosophy"」, 『Research in Phenomenology』 vol. 39, iss. 3, 2009, p.456.

## 2. 변화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 연구

작업의 시작에 앞서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받은 요소들에 관한 연구와 ‘시간에 따른 변화, 불완전성, 그리고 흔적을 남기고 축적하기’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금속 기물 및 예술 장신구로 시각화하는데 선행 사례 연구가 필요하였다. 위와 같은 요소를 지닌 형상을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영화, 음악, 조형예술 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무슨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연구 작품 제작에 영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림 2] 어린 아이

(출처: <https://www.pinterest.co.kr/>)



[그림 3] 강아지

첫째로, 나의 창작 활동에 가장 큰 동기로 영향을 끼친 일상생활이다.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 일상 속에 불쑥 끼어드는 변화들이 감성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나에게는 인간관계 속 변화들이 크게 다가왔고, 이는 성장하면서 함께 하는 변화들이었다. 따라서 아이들이나 동물들을 보면 아직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은 순수함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어린아이와 아기, 동물들에게는 반발하는 마음, 불신의 감정이 없다. 그런 감정들은 손익을 따지고, 목적에 어긋나는 힘과 수단을 선택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은 온전하며, 그들의 눈은 아직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았다.”<sup>14)</sup>

그들에겐 나에게 있었지만 없어진 순진무구함이 존재하였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둘 다 새로운 사물과 환경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탐색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복잡한 세상과 대비되어 조금 더 순수하고 단순한 삶의 가치를 상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많은 영감과 위안을 주었다.



[그림 4] 영화 보이후드  
(출처: <https://www.altfg.com/film/boyhood-movie/>)

다음은 이 연구와 유사한 주제를 가진 <보이후드(Boyhood)><sup>15)</sup>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한 아이가 성장해 어른이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성장일기’라는 측면에서 나의 작업과 유사하다고 느꼈다. 영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들의 외모나 환경, 사회적 배경, 가족관계 등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4) 랄프 월도 에머슨, 이종인 번역, 『자기 신뢰: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현대지성, 2021, p.21.

15) 리처드 링클레이터(Richard Linklater) 감독의 영화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단순히 인물들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는 성장과 변화, 인간관계의 유동성, 가족과의 관계 등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보이후드’는 이전의 영화와는 다른 실험적인 시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공감적으로 그려냈을 뿐만 아니라 12년이라는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림 5] 베토벤

(출처: <https://www.papertrell.com/>)

이러한 서사는 음악에도 등장한다. 바로 베토벤의 9번 교향곡 4악장 “합창”이다. 이 곡은 인간이 겪는 삶의 변화와 동시에 인류 역사상 발생한 변화들에 대한 축적된 감정을 담고 있다. 특히 4악장의 후반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울적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이후 강한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다시금 희망적인 감정으로 이어진다.<sup>16)</sup> 이렇듯 변화하는 감정을 연속적으로 표현한 이 곡은 시간에 따른 변화의 흔적을 담은 음악이라고 볼 수 있다.

16) David Benjamin Levy,『Beethoven, the Ninth Symphony』, Schirmer Book, 1995, p.37.



[그림 6] Richard Long,  
<A Line Made by Walking>, 1967  
(출처: <https://www.artimage.org.uk/>)

미술 분야에서는 변화에 대한 주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한다. 영국의 랜드아트 Land art 예술가인 리차드 롱의 “A Line Made by Walking”은 영국 시골의 들판을 걸으며 길을 만든 작품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의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들이 과거의 발자취를 따라 풀숲을 가로지른 줄기를 따라 걸으며 생성된 산책로의 흔적을 남긴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연과의 상호작용, 시간의 흐름과 변화의 개념을 탐구한다. 산책로가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개입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임시성과 영속성, 이론과 현실, 예술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하는 랜드 아트 운동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sup>17)</sup>

17) <https://www.tate.org.uk/art/artworks/long-a-line-made-by-walking-p07149>  
(2023년 4월 21일 검색)

### III. 변화의 흔적 및 축적을 표현하기

점차 변화하는 지난 행위의 흔적과 그에 따른 흐름의 축적을 패턴으로 시각화하여 금속 표면에 부식함으로써 기존의 매끈하고 온전한 표면이 사라지게 하였다. 이렇게 행위와 흔적을 간직한 금속 판재를 추가로 접거나 말아 가공함으로써 금속 기물 또는 예술 장신구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변화의 순간을 부식된 금속면에 잉크나 물감을 묻혀 종이에 찍어내는 판화로 제작함으로써 변화의 순간들을 기록하여 남겼다.

#### 1. 지난 행위의 흔적 남기기

지난 행위의 흔적을 남길 방법으로는 부식이라는 기법을 택하였다. 제일 처음 부식을 시도한 작품인 [작품 1]에서 자연에서 시각적 영감을 받아 땅의 갈라짐을 부식으로 새겨 넣었다. 초기에 부식 기법을 활용한 이유는 밋밋한 표면에 단순히 장식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그러나 작업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금속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와 닿았다. 부식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란 점을 감안해,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변화, 또는 삶의 유한성과 같은 의미를 담고 싶었다. 또한, 부식은 완전함의 상태를 파괴한다. 그러나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완전함과 불완전함, 결함의 아름다움 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 1.1. 부식

이 연구에서 주가 되는 기법은 부식이다. 부식은 ‘파고들다, 파먹다’<sup>18)</sup>라는 의미가 있다. 금속 표면에 산을 접촉해 일정한 깊이로 금속을 파내는 가공 기법이다. 부식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방식제를 도포한 후 노출된 금속의 표면만을 부식 시켜 요철을 만들어 부조적 효과

---

18) 한국어기초사전(krdict.korean.go.kr), ‘부식’

를 기대할 수 있다.

부식액의 농도, 온도, 시간을 달리해 부식의 깊이, 두께, 모양을 제어하였다. 부식 문양을 어떤 방법으로, 무슨 방식제를 사용하여 새기느냐에 따라 ①드로잉 부식 ②질감 패턴 부식 ③사진 부식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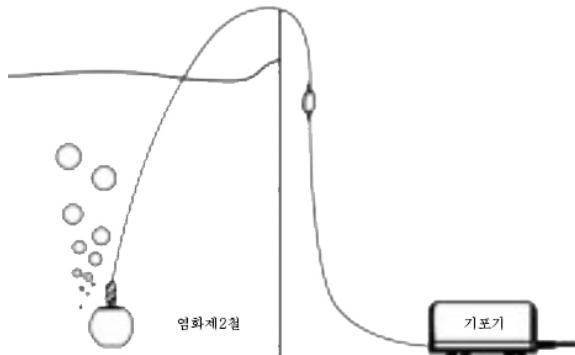


[그림 7] 가로형 부식통과 설치된 공기 펌프



[그림 8] 세로형 부식통  
(출처: <https://www.takachpress.com/>)

위의 [그림 7, 8]은 이 부식 연구에 사용된 가로형 부식통과 판화에서 사용되는 세로형 부식통이다. 금속공예분야 외에 부식 기법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예술 분야는 오목판화 중 동판화가 있다. 판화 실기실에는 금속판이 세로로 세워져 있는데, 부식된 금속물이 고여 있지 않고 아래로 흘러 부식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세로형의 부식통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길이가 긴 금속판을 사용했기에 가로가 긴 안정된 부식통이 필요하였다. 가로형 통에 부식을 하는 경우 부식액과 금속물이 고여 있지 않고 잘 흐르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어항에서 사용하는 공기 펌프를 사용하였다. 공기펌프는 침전물이 생기지 않게 부식액을 순환시켜준다. 또한, 겨울에 온도가 낮아지면 부식액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항에서 사용하는 온도조절기로 온도를 유지해주었다.



[그림 9] 부식액 속 공기 펌프 활용

(출처: <https://www.kerysatts.pw/>)

염화제2철<sup>FeCl<sub>2</sub>·4H<sub>2</sub>O</sup> 부식액은 본래 황갈색 결정 또는 덩어리로 된 강화제<sup>19)</sup>이다. 염화제2철은 원액을 사용하거나 물을 섞어 사용하고 약품의 양과 농도가 부식 시간의 차이를 결정한다. 부식액은 계속 재활용 하며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 부속물이 섞여서 부식 속

19) 두산백과([doopedia.co.kr](http://doopedia.co.kr)), ‘강화제’

도와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재활용하기 위해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통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73×41(cm) 넓이의 통을 사용했기에 매번 부식액을 통에 담아 재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공기에 노출된 부식액은 공기 중 수분을 빨아들여 [그림 11]과 같이 결정체가 생기며, 이는 포화용액으로 변환된 상태이다.<sup>20)</sup>



[그림 10] 부식액 염화제2철



[그림 11] 결정체가 생긴 부식액

### 1.1.1. 드로잉 부식

첫 번째로, 가장 접근하기 쉽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할 수 있는 드로잉 부식 방법을 시도하였다. 방식제 역할을 하는 유성 매직이나 매니큐어로 금속판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도포한 후 사포나 판화용 니들로 긁어낸다. 직접 손으로 그려 선의 굵기나 터치의 강도 등을 조절할 수 있기에 유기적인 흐름이나 곡선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입체기물에 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드로잉 부식의 한계는 입체 가공된 기물에 적용 할 때 올록볼록한

20) M. D. Lind, 「Crystal Structure of Ferric Chloride Hexahydrate」, 『The Journal of Chemical Physics』 Vol. 47, Iss. 3, 1967, p.992.

표면에 규칙적인 직선의 요소가 들어간 문양 및 이미지를 그리거나 전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양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입체 형태를 부식하려면 그에 맞는 부식통을 필요로 하는데, 최소한의 부식액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의 부식 통을 찾기 어렵고 [표 1]의 부식 전 기물의 사진과 같이 입체형태 내면을 보호해도 부식액이 침투하기 쉬워 원하지 않는 부분에 부식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성 매직은 오랜 시간 부식하게 되면 액체에 불어 쉽게 떨어져서 원하지 않은 부위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실험 평면판	작품 입체기물
부식 전		
부식 후		

[표 1] 드로잉 부식의 부식 전과 후



[작품 1] <Ruff Tuff I>, 적동에 은 도금, 155×150×150mm, 2021

### 1.1.2. 질감 패턴 부식

다음의 질감 패턴 부식은 자수 천과 질감지를 활용한 부식 방법이다. 자연에서 채취한 나무의 섬유질, 나뭇잎, 실 등 유기적이고 유연한 선과 작은 흔적들을 금속판재에 전사해 부식을 통한 장식된 질감은, 계산되지 않은 조각들의 배치가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는 점으로 주제를 강조한다. 또한 반복적인 패턴은 부식함으로써 규칙성을 파괴하여 불완전성을 표현하였다.

앞서 언급한 드로잉 부식은 일정한 패턴을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에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 천과 종이 등을 활용해 시도하였다.

#### 자수 천 부식

먼저 자수 천은 망사 재질에 자수와 같이 네거티브<sup>negative</sup>의 공간을 가진 천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천이 스텐실<sup>21) stencil</sup>과 같은 역할을 하여 금속 표면 위에 위치시키고 또 다른 방식제 역할을 하는 락카 스프레이<sup>lacquer spray</sup>를 뿌리게 되면 노출된 네거티브 공간에 방식제인 락카 스프레이가 들러붙어 부식이 되지 않는 패턴으로 생성된다.



[그림 12] 자수가 새겨진 망사 레이스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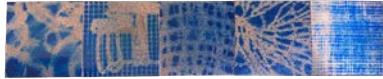
이 방법 또한 입체 조형물에 패턴을 전사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21) 판에 구멍을 뚫고 구멍에 잉크를 통과시켜 찍어내는 공판화(孔版畫) 기법 혹은 이 때 사용되는 판 또는 그 결과물. 두산백과(dooopedia.co.kr).



[그림 13] 삼베 천

이었고, 원하는 문양을 다양하게 전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식 후 용해제인 시너<sub>thinner</sub>로 방식제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제거하기 어려운 만큼 방식이 잘 되어 오랜 시간 부식해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실험 평면판	작품 입체기물
부식 전		
부식 후		

[표 2] 자수 천 패턴 부식의 부식 전과 후



[작품 2] <Ruff Tuff II>, 적동에 은 도금, 135×105×190m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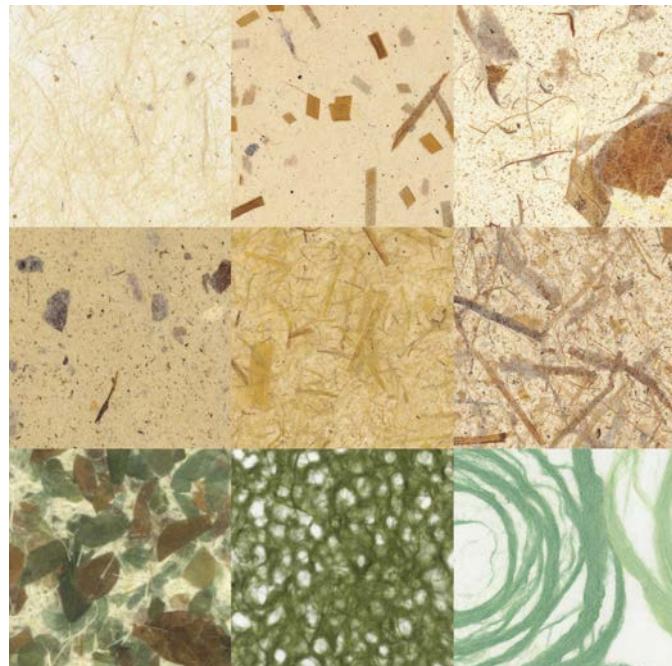
[작품 3] <Ruff Tuff III>, 백동에 DLC 코팅, 250×250×30mm, 2021



[그림 14] <Ruff Tuff III>의 DLC 코팅 전

## 질감지 부식

다음은 질감지를 활용한 부식 방법이다. 질감을 가진 다양한 응용한지, 실, 노끈, 호일 등 두께가 두껍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인 질감을 가진 것 위주로 활용하였다.



[그림 15] 다양한 응용한지

판화에서는 방식제로 아스팔트의 주 원료인 에칭 그라운드를 사용한다. 에칭 그라운드는 하드 그라운드와 소프트 그라운드가 있다. 하드 그라운드는 뾰족한 니들로 긁어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고 미세한 선 표현을 요할 때 유용하다. 이 연구에서는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 있는 소프트 그라운드를 활용하였다. 크레용이나 콘테 느낌 또는 지문이나 나뭇잎, 천의 조직 같은 효과를 얻는데<sup>22)</sup> 이용하는 소프트그라운드를 [그림 16]과 같이 금속 표면위에 고르게 발라주고 질감을 가진 스크랩을 원하는 곳에 위치시켜 패턴을 금속에 롤프린팅 하듯 [그림 17]과 같

22) [http://www.artegate.com/gate/fineart\\_cut.htm](http://www.artegate.com/gate/fineart_cut.htm) (2023년 4월 28일 검색)

이 프레스로 전사시킨다. 그러면 질감이 있던 부분은 노출되어 부식된다. 부식 결과는 [그림 18]과 같이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림 16] 금속에 소프트그라운드를  
바른 뒤 질감지를 위치시킨 모습



[그림 17] 롤프린팅하는 모습



[그림 18] 노출된 질감이 부식된 후



PhotoRoom®

[그림 19] 장시간 부식으로 벗겨지는 금속 표면

장시간 부식하게 되면 금속 표면이 껍질같이 벗겨진다. 이는 부식된 틈 사이로 부식액이 침투해 생기는 현상이다. 문양이 부식된 곁면 조각들이 너덜거리거나 떨어져 나가, 원하는 질감을 잃을 수 있기에 시간 조절에 주의해야 한다.



[그림 20] 단계별 부식

부식은 여러 차례 진행할수록 더 깊이감이 생기고 단계별 명암 표현이 가능하다. [그림 20]은 소프트 그라운드에 니들로 점을 찍어 단계별로 부식한 예시이다. 한 단계씩 올라 갈수록 점의 크기를 키워 점점 변화해가는 것들을 점에 비유해 표현해보았다.

[작품 4]의 왼쪽 작품은 가로 방향으로 점의 밀도 변화 단계를 표현해 가로로 말아 제작하였고, 오른쪽의 작품은 세로 방향으로 점의 크기를 줄이고 키우면서 가로로 말은 작업이다. 두 작업의 부식과 가공 방향을 다르게 한 이유는 개인마다 각기 다른 변화를 겪고, 같은 변화를 거치더라도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싶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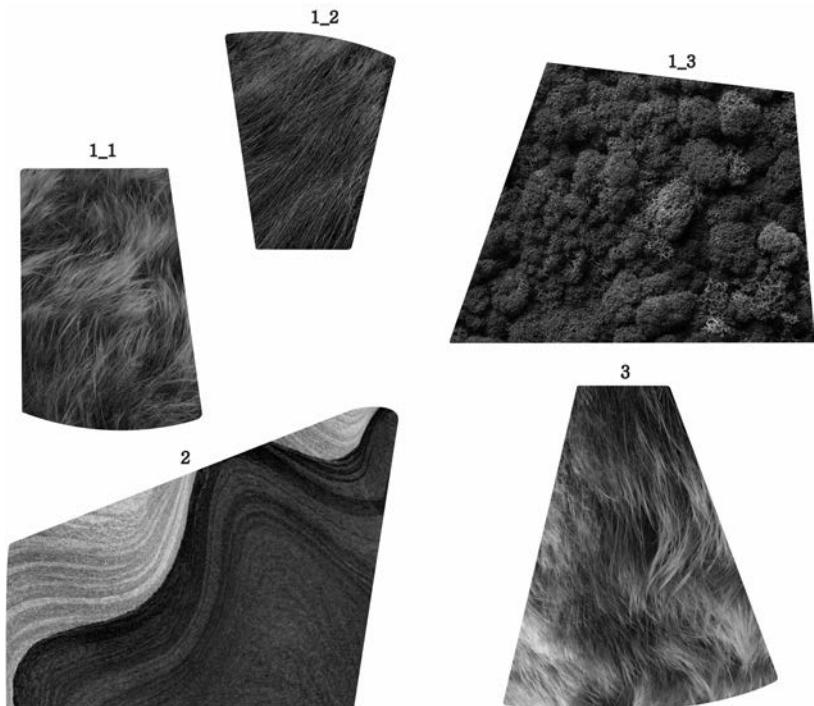
[작품 4] <Vase I, II>, 황동, 120×120×250mm, 2021



[그림 21] <Vase I, II>의 세부

### 1.1.3. 사진 부식

사진 부식은 디지털로 된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부식 방법이다. 우선 부식할 이미지를 ‘흑백화’시켜야한다. 꼭 디지털로 된 이미지 파일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문양을 드로잉하거나 종이나 천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할 수 있다. 스티커 접착면을 보호하기 위해 표면 가공된 종이인 이형지에 레이저 프린터로 흑백의 이미지를 프린트해 열판에 금속판을 올리고 프린트물을 전사시켜 검정 레이저 외에 노출된 부분을 부식시키는 원리이다.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의 픽셀레이트-하프톤/메조틴트 기능을 사용하면 점묘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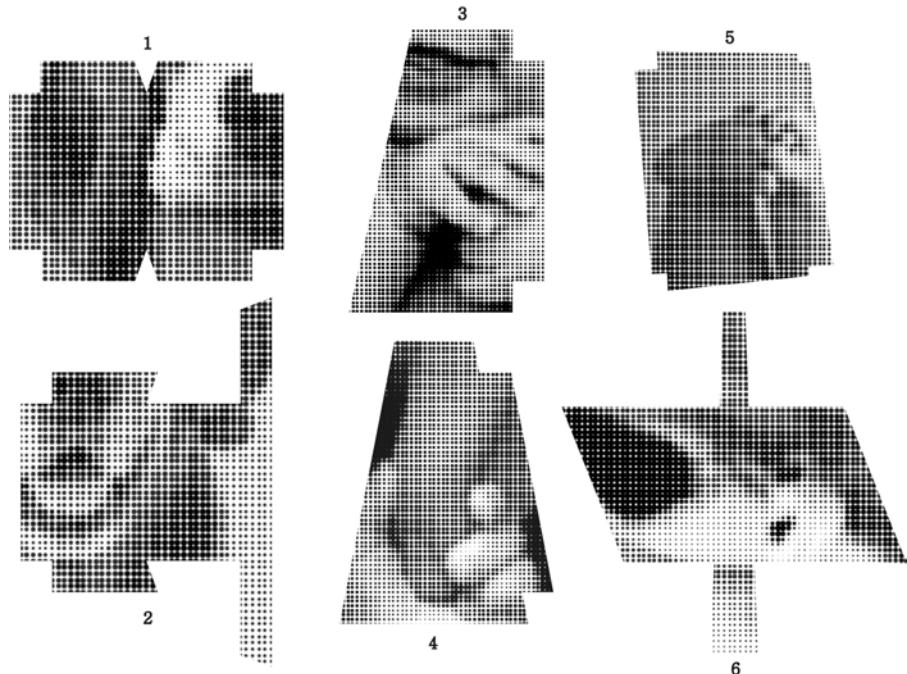


[그림 22] 사진을 흑백화 시킨 이미지

[그림 22]는 자연의 흐름에 영감을 받아 고른 이미지들을 원하는 금속판 모양으로 오리고 이미지를 입힌 모습이다. 이 판들을 말아서 [작품 29, 32, 33]을 완성하였다.

자연의 흐름은 그 속에서 변화와 순환, 조화 등의 원리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흐름에서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조화로움이 깃들어 있고 그것은 감정과 직관, 자유로움과 순환 등과 관련하여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삶의 순환성과 변화의 미묘함을 담고 있어 변화와 성장의 개념과 연결 지을 수 있었다.

자연은 조화와 균형의 원리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참조하여 작품의 비례와 조화를 조절하였다. 자연의 흐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서 숨 쉬고 있는 무한한 힘과 신비를 상기시켜 주었고,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이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와 연결을 추구하는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을 표현하였다.



[그림 23] 사진에 하프톤 기능을 적용한 이미지

[그림 23]은 아기의 순수함에 영감을 받아 아이의 신체 부위 사진을 확대하여 하프톤 효과를 적용한 이미지를 금속판 모양에 입힌 모습이

다. 접어서 완성할 전개도이며 결과는 [작품 24, 25, 26, 27] 이다.

아이들은 세상을 처음 경험하고,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복잡한 사고나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세상을 받아들인다.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할 수밖에 없으며,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단순한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한다. 또한 아이들은 감정을 순수하게 표현하고 즐거움과 슬픔, 놀라움과 불안함을 진솔하게 경험한다. 사회적인 기대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기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순수한 감정은 인간성과 감성의 근원적인 부분을 되돌아보게 하고, 현실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또한 자유로움과 즐거움, 창의성과 열정을 상기시켜 작업에 진심과 깊이를 더해주었고, 그들의 관점과 태도는 진실성과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2. 흔적 기록하기

변화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판화를 제작하였다. 원본 금속판을 판화로 찍어내고, 접거나 말아서 입체 가공을 하게 되면 다시는 판화를 찍을 수 없게 된다. 판화는 하나의 판으로 여러 장을 찍을 수 있는 대량 생산의 목적을 띠는데, 이러한 작업 과정은 판화를 유한하게 만든다.

### 2.1. 판화

판화版畫는 인쇄 기술의 일종으로, 판에 그림이나 문자를 새기거나 인쇄용 도안을 만들어 판의 표면에 잉크를 발라 인쇄를 하는 기법을 말한다.<sup>23)</sup> 대표적으로 목판화, 동판화, 실크스크린silkscreen, 석판화 등이 있다. 판화는 대량생산과 배포가 가능한 인쇄물을 만든다.

---

23) 위키피디아(wikipedia.org), ‘판화’

## 2.2. 작품 연구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판화를 바로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금속판을 둘러로 말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그 행위의 의미가 각별하게 여겨졌다. 한번 말게 된 이상 겹쳐서 가려진 부분은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부식 기법을 통해 지난 행위에 대한 흔적을 남겼지만 그 온전한 흔적을 기록하고 축적하고 싶었다.

[작품 5, 6]은 판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이미 말아서 완성한 목걸이 [작품 30]에 수채화 물감을 발라 도화지에 굴리면서 흔적을 남겼다. 이미 말아져서 가려진 부분의 흔적은 남기지 못했지만, 일반 동판화는 오목 판화로 부식된 부분이 찍히는 반면, 이 방법은 양각이 찍힌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작품 7]의 판은 0.3t의 적동 판을 부식해 찍은 판화이다. 최소의 지름으로 말기위해 손으로 말아야 하였고, 아주 얇은 판을 사용하였다. 판화는 프레스에 판을 올려놓고 종이를 위치시킨 위에 펠트지로 덮고 압력을 가하고 프레스를 돌리는 과정으로 제작한다. 프레스 사이에 판과 종이의 두께의 차이가 생기면서 압력이 가해져 음각에 끼인 잉크가 종이로 새어 나오면서 판화가 찍히는 원리이다. 그러나 이 작업의 경우, 판이 지나치게 얇으면 두께 차이가 적어지면서 잉크가 나올 압력이 부족하여 선명한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따라서 적절한 압력을 얻기 위해 종이를 여러 장 겹쳐 두께를 만들었고 이내 향상된 선명도를 가진 판화를 얻을 수 있었다. [작품 9, 10, 11, 12, 16, 18] 모두 얇은 판을 사용하여 종이를 여러 장 같이 겹쳐서 작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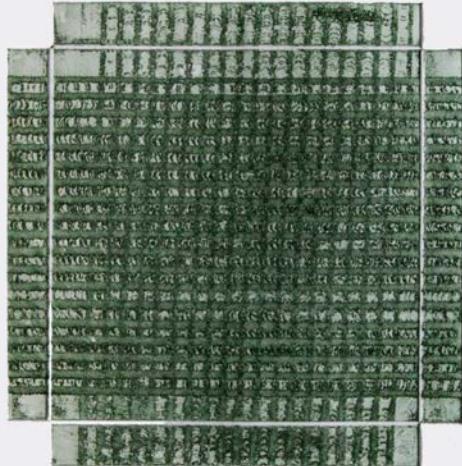
[작품 5] <Trace I>, 도화지에 수채화, 220×160mm, 2021



[작품 6] <Trace II>, 도화지에 수채화, 220×160mm, 2021



[작품 7] <Copper Brooch I>, 판화, 300×160mm, 2023



[작품 8] <B. Brooch I>, 판화, 175×175m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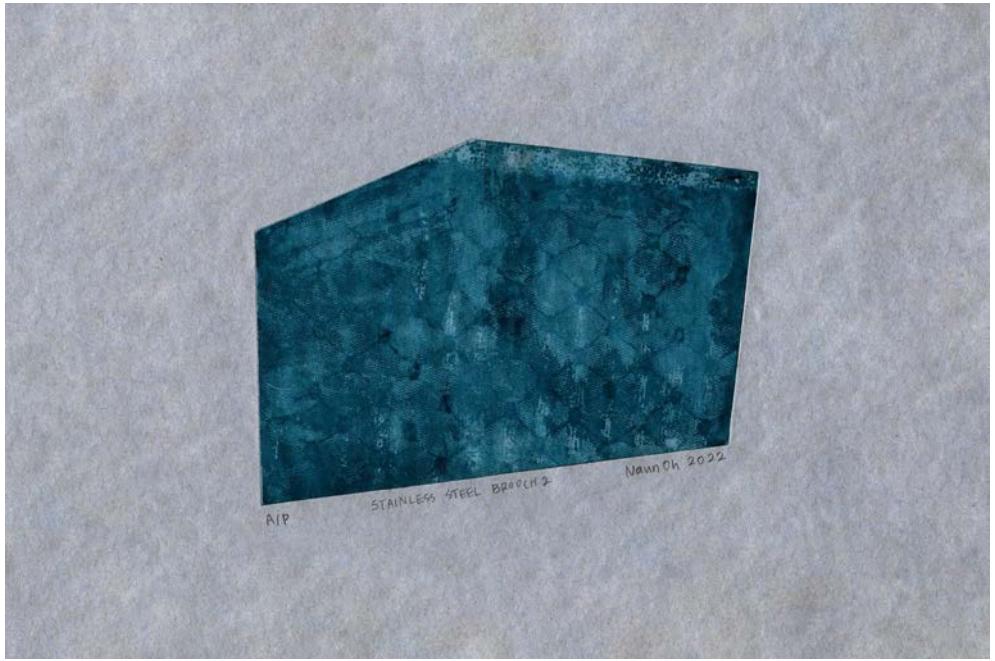
다음 장에 나오는 [작품 9~14]의 판화들은 보통 신문을 인쇄하는 종이로 알려진 갱지를 판화지로 사용한 사례이다. 판화지는 작품의 보존력, 잉크 선명도 등의 질을 높이고 판화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판화지는 대부분 코튼을 함유하고 수제지이기에 일반 종이보다 값비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판화는 시험용으로 위치나 색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갱지에 먼저 찍어서 확인하게 된다.<sup>24)</sup> 갱지는 회색을 띠기 때문에 유색 잉크 사용을 통해 흰색 종이보다 시각적으로 대비되어 흥미로운 결과물이 나왔다. 따라서 시험용이 아닌 작품으로 채택하였고 색 잉크들을 조색하여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 판화지와 더불어 갱지에도 판화를 찍게 되었다. 갱지 외 백색 종이는 로자스피나 220g을 사용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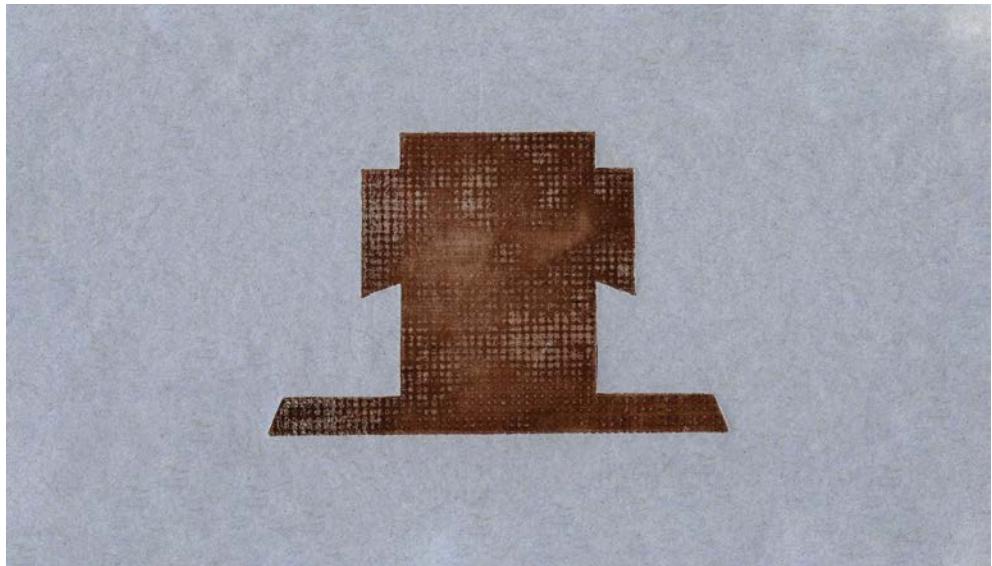
24) Ann D'Arcy Hughes · Hebe Vernon-Morris, 『The Printmaking Bible : The Complete Guide to Materials and Techniques』 , Chronicle Books, 2008, p.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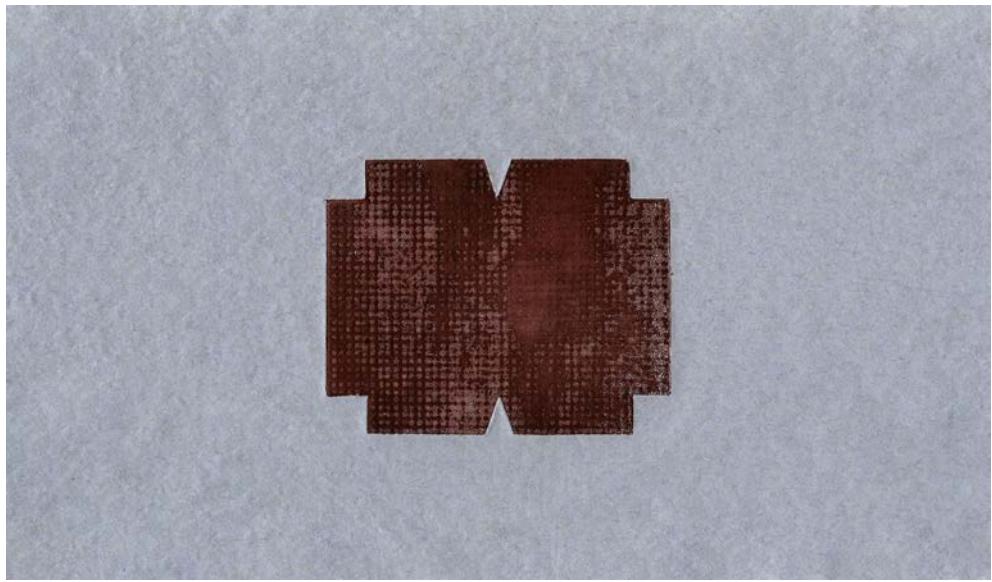
[작품 9] <Stainless Steel Brooch I>, 판화, 240×170m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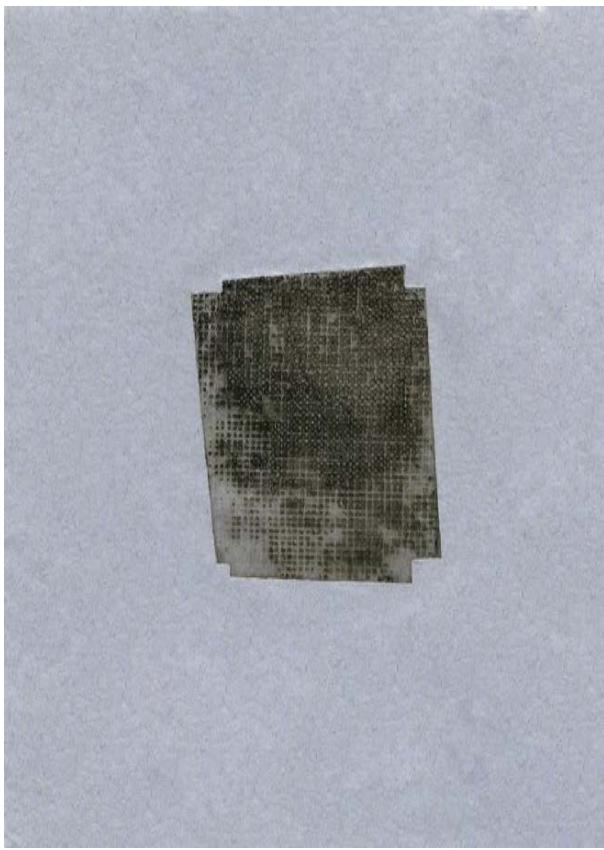
[작품 10] <Stainless Steel Brooch II>, 판화, 240×170mm, 2022



[작품 11] <Fade Away Series I\_1>, 판화, 250×145m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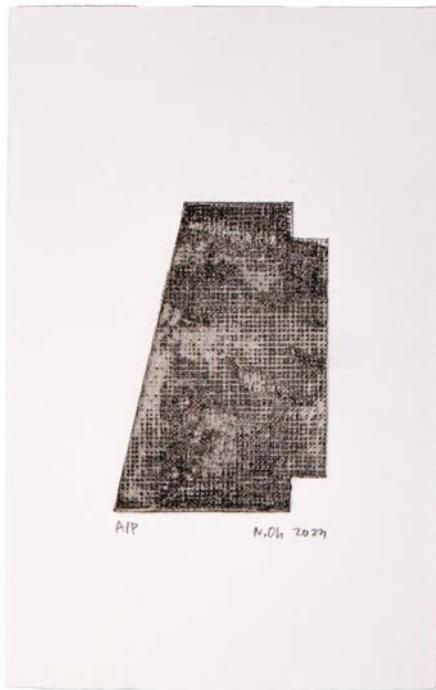
[작품 12] <Fade Away I\_2>, 판화, 250×145m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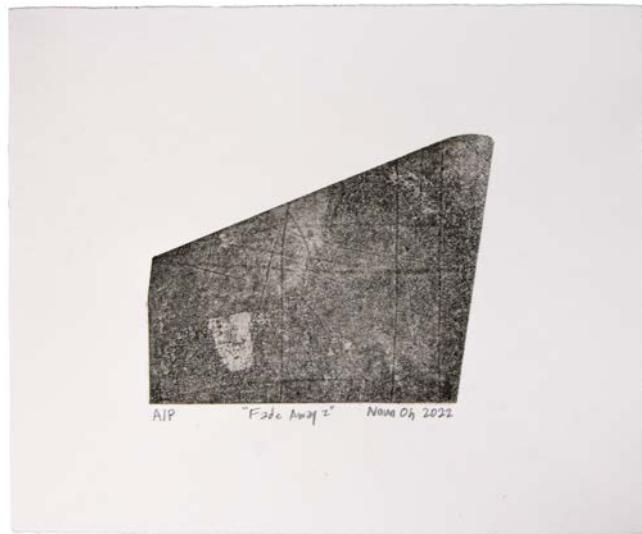
[작품 13] <Fade Away I\_5>, 판화,  
145×200mm, 2023



[작품 14] <Fade Away I\_4>, 판화,  
140×205mm, 2023



[작품 15] <Fade Away I\_3>, 판화,  
125×195mm, 2023



[작품 16] <Fade Away Series II\_2>, 판화,  
200×165mm, 2023



[작품 17] <Fade Away Series II\_1>, 판화, 260×220m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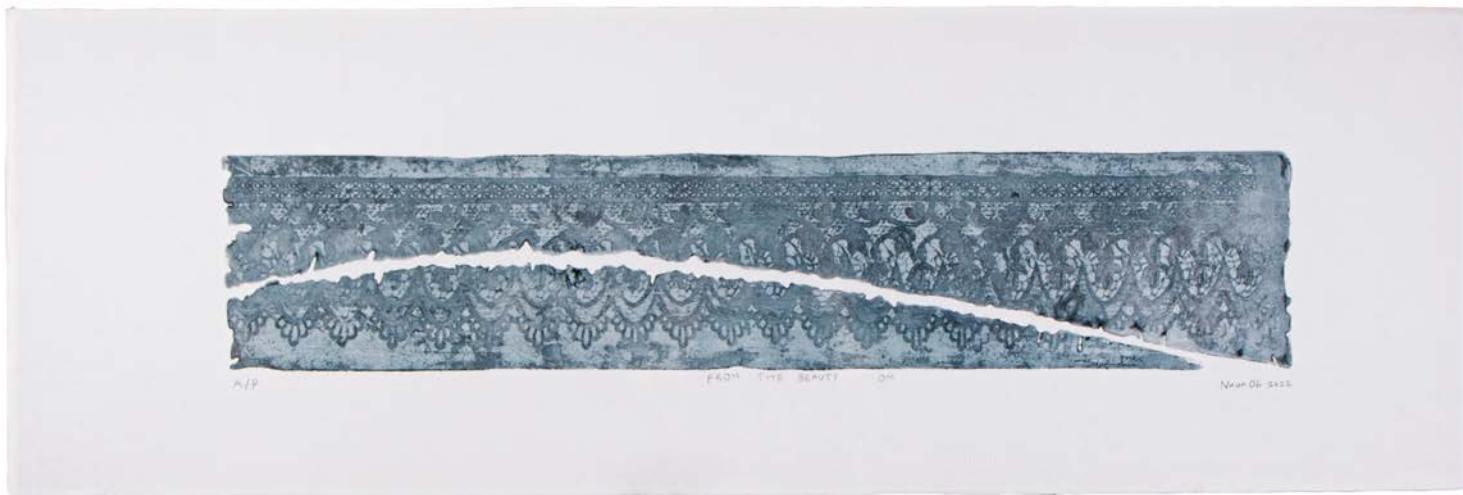
[작품 18] <Fade Away Series II\_3>, 판화, 130×120mm, 2023

[작품 16, 17, 18]은 [그림 22] 자연 이미지를 입힌 금속판을 찍은 판화물이다. [작품 16]은 이미지 중 2번, [작품 17]은 1\_3, 1\_2, 1\_1번 [작품 18]은 3번의 이미지이다.

[작품 17]은 3개의 판이 결국 하나의 작업이 되기에 한 종이에 배치시켜 찍어내었다. [작품 18]은 처음으로 알루미늄판에 부식을 시도한 사례였다. 알루미늄이 0.3mm의 두께로 얇기도 했지만 다른 동 합금속에 비해 비교적 빨리 부식이 진행되어 본래 금속판의 모습이 아예 사라진 모양이 되었다. 결과물을 보고 돌이 떠올랐다. 의도와는 다른 형태가 되었지만 돌 모양이 흥미로워 세 가지의 잉크를 조합하여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었다.



[작품 19] <Vase III>, 판화, 700×585mm, 2022



[작품 20] <From The Beauty>, 판화, 820×270mm, 2022



[작품 21] <Vase IV>, 판화, 745×320mm, 2023

### 3. 입체 도형 변형하기

다음은 형태 제작에 관한 장이다. 판을 재단하고 부식을 한 뒤 판화로 찍은 이후 입체로 가공하는 과정을 담았다. 입체 도형인 정육면체와 원기둥 두 가지를 변형시켜 형태를 완성시켰다. 각을 가지는 형태는 각접기를 하였고, 원기둥 형태는 말아서 가공하였다.

접기에 관한 작품연구에 앞서, 대학원 1학기에 첫 과제로 황동 판을 접어 우유 꽈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 있었다. 나는 실제 우유 꽈을 칼로 잘라서 두개의 도면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최소한의 판 개수로 접을 수 있게 전개도를 만들었다. 우유꽈이 완성된 후, 각의 단면들이 깔끔하게 접히고 맞닿는 과정이 만족스러웠고 다면체가 주는 정직함과 단순함의 매력을 느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초기 연구 주제로 설정했던 ‘변형된 정육면체’는 자신의 내면을 대체하는 매체였다. 정육면체는 나에게 온전함과 견고함으로 다가왔고 그것을 변형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변형되었을 때 생기는 완전하지 않음이 좋았고 무한한 기운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림 24] 변형된 정육면체 사례 연구

(출처: <https://www.pinterest.co.kr>)



[그림 25] 변형된 정육면체 실험 1

변형된 정육면체를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작업을 구상하였다. [그림 25]는 처음 시도된 모델링과 습작이다. 정육면체 전개도의 금속판에 사포를 사용하여 스크래치가 난 문양의 부식을 진행시켜 판을 깎고 정육면체로 접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속에서 터져 나오는 듯한 형상을 주기 위해 공이 기구를 사용해서 형태를 성형시켰다. 의도적으로 판과 판 사이를 꿈틀거리듯 성형하여 틈을 만들었다. 구의 형태는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인위적인 느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림 26] 변형된 정육면체 실험 2

다음 시도는 정육면체 안에 물을 넣어 얼리고, 팽창시켜 형태를 변형시키려 하였다. 물은 얼면 부피가 팽창하는 특성을 갖는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분자들이 규칙적인 구조, 즉 결정 구조를 형성한다. 이 구조는 물 분자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큰 공간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 부피가 증가하고 밀도가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물은 약 9% 정도 팽창하면서 얼음이 된다.<sup>25)</sup> 이는 물이 얼음으로 굳어질 때 부피가 약 9% 정도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물 풍선을 사용하였으나 정육면체 내부의 남는 공간으로 풍선이 팽창되어 정육면체 자체의 형태 변화는 없었다.



[그림 27] 변형된 정육면체 실험 3

정육면체 안 공간을 최소화 하기위해 작은 물 풍선들로 최대한 공간을 채워 넣으려고 시도했으나 이 마저 남아있을 수밖에 없던 빈 공간으로 팽창되어 팽창효과가 떨어졌다.

더욱 빈 공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육면체 안을 비닐봉지로 감싸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 뚜껑을 닫고 클램프로 고정한 후 얼렸다. 비로소 빈 공간이 최소화되어 정육면체는 팽창되었고, 수차례 물을 녹이고 얼리는 작업을 반복하고 추가되는 빈 공간에 물을 추가하였다.



[그림 28] 클램프로 고정한 모습

25) R.W. Powell, 「Thermal Conductivities and Expansion Coefficients of Water and Ice」, 『Advances in Physics』 Vol. 7 Iss. 26, 1958, 289-95.



[그림 29] 변형된 정육면체 실험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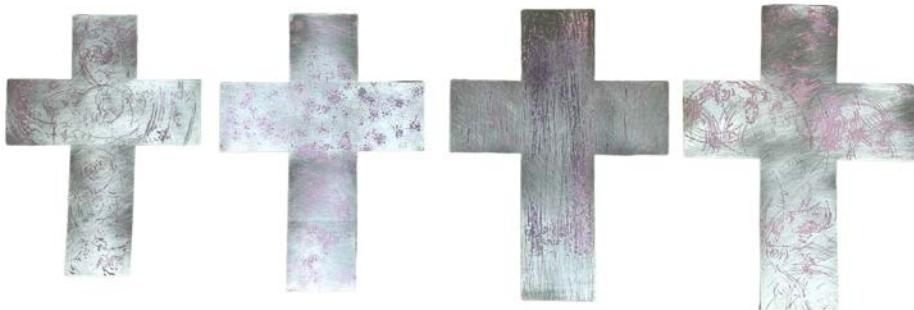
[그림 30] 변형된 정육면체 실험 결과물

결과적으로 [그림 29, 30]과 같이 정육면체의 형태가 변하고 틈이 생겼으나, 틈이 벌어진 곳 위주로만 더 벌어졌고, 기대했던 효과인 부식으로 얇아진 부분이 찢어지거나 터지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인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 연속과 반복에 의해 깎이고 뜯어지고 터지는 취약함을 표현하려 했으나 그 효과는 미약하였다.

다음 시도로 팽창의 효과 대신 증식과 증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작품 22]와 같이 일정 간격으로 커지는 정육면체를 마트료시카<sup>26)</sup> Matryoshka의 매체적 특성과 유사하게 ‘감싸고 감싸는 행위’를 반복하여 만들었다.

[그림 31]과 같이 정육면체 전개도를 4개의 부식 문양을 규칙적으로 반복해 부식하였다. 넓이가 20mm부터 77mm까지 3mm의 간격으로 커지는 정육면체 19개를 겹쳐서 접으며 각도가 점점 벌어지게 하였다. 크기가 커질수록 부식 시간을 길게 달리하여 변화를 주었다.



[그림 31] <Growing>의 작업 과정

---

26) 행운을 상징하는 러시아 전통 인형, 몸체는 상하로 분리되고, 인형 안에 크기가 더 작은 인형이 3~5개 반복되어 들어 있는 구조이다. 두산백과([doopedia.co.kr](http://doopedia.co.kr)).



[그림 32] <Growing>의 작업 과정



[그림 33] <Growing>의 작업 과정

완성된 [작품 22]은 여러 개의 판이 하나의 작품이 되다 보니 작업 공정의 시간이 오래 걸렸다. 판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전개도를 직접 톱으로 자르고 접는 부위를 파고 출질하여 각을 만들었다. 나중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레이저컷팅과 V컷팅 전문 업체에 도면을 전달해 외주를 맡기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시간은 단축되었지만 부식 과정에서 한 번에 최대 2~3개까지 밖에 진행할 수 없고, 판이 커질수록 부식 시간이 길어진다는 시간적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작업에 대한 확신이 떨어져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였다. 결과적으로,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시각적으로 효과적이진 않았다. 정육면체가 커질수록 부식의 깊이와 정도의 차이가 커지게 할 계획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부식이 되어 판이 매우 얇아져 약해졌다.



[작품 22] <Growing>, 황동, 175×180×120mm, 2022



[그림 34] <Growing>의 세부

### 3.1. 네모나게 접다

#### 정육면체의 변형

정육면체의 변형은 정육면체 그 자체에 변형을 주기보다는 면을 이어 붙이거나 각도 등을 달리해 변형을 주었다.

정육면체를 변형한다는 것은 형식의 파괴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형을 통해 통상적인 기대치나 규칙에 도전하는 것을 말한다. 정육면체는 구조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완벽한 균형, 안정, 대칭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완벽한 형태가 변형되는 것은 완벽함에 대한 도전, 변화나 진화, 혹은 붕괴나 파괴 같은 과정을 상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육면체를 변형시켜 개인의 성장 과정을 나타내거나, 사회적 변화를 묘사하거나, 심리적 충격을 표현하였다.

또한, 정육면체는 물리적인 공간을 상징하며, 그것의 변형은 공간이나 시간의 변화를 시각화하는 방법이었다. 예를 들어, 정육면체가 일그러지거나 각도가 뒤틀리는 것은 공간의 왜곡, 차원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 등을 보여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육면체의 변형은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나 감정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정육면체가 재구성되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 심리적인 상태, 또는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정육면체의 변형은 예측 가능한 세계가 어떻게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변할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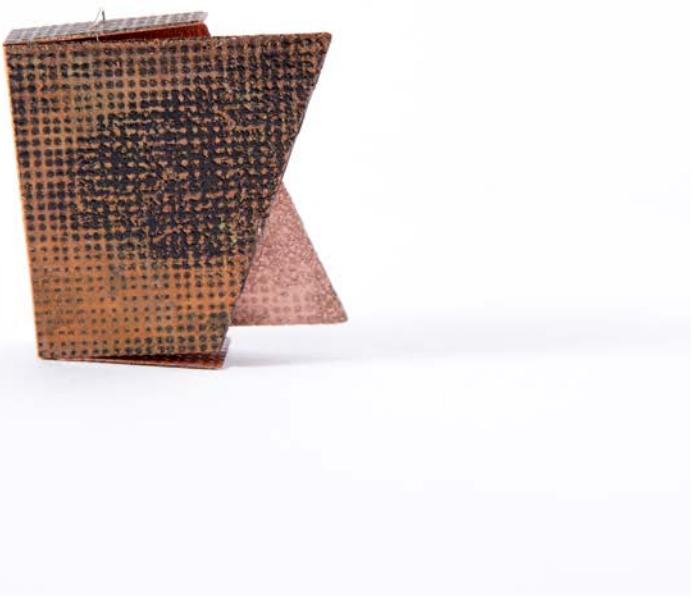
[작품 23] <B Brooch I>, 황동에 옷칠, 75×75×8m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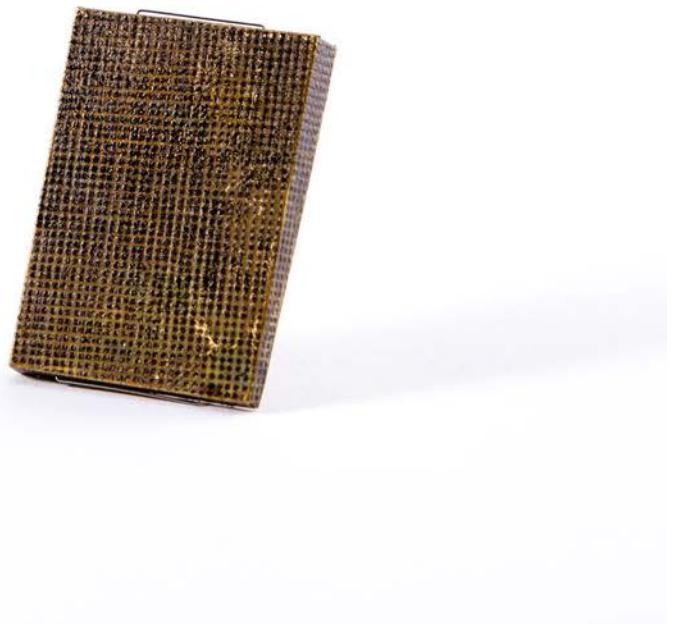
[작품 24] <Fade Away Series I\_1, 2>, 스테인레스 스틸에 사진 부식, 각 63×50×20mm, 2023



[작품 25] <Fade Away Series I\_3, 4>, 적동에 사진 부식, 각 58×72×10mm, 2023



[작품 26] <Fade Away Series I\_6>, 적동에 사진 부식, 50×53×15mm, 2023



[작품 27] <Fade Away Series I\_5>, 황동에 사진 부식, 46×68×10mm, 2023

[작품 24~27]의 사진 부식을 활용한 장신구 작업은 프린트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 부식 후 벗겨낼 계획이었지만, 부식으로 산화된 금속의 색상이 보라, 연두, 초록 계열의 색을 띠면서 프린트된 하프톤 이미지와 어울리며 예상외로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부식된 금속을 중화시키지 않으면 표면에 부속물이 떨어져 나오고 프린트 이미지도 물을 수 있다. 표면을 코팅할 수 있는 코팅제가 필요하였고 총 8가지의 코팅제를 이용하여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코팅제를 골랐다.

UV 레진, 에폭시 등 레진 류의 코팅제는 번들거림이 심하고 표면을 고르게 바르기 어려웠다. 르네상스 왁스 Renaissance Micro-Cryatline Wax Polish와 밀랍은 코팅 과정 중 문지름과 동시에 본래 표면이 벗겨질 수밖에 없었다. 매트 바니쉬 matt varnish와 우드 스테인 wood stain이 발림성과 본래 금속의 질감과 색상을 잘 살려주는 면에서 우수하였고, 매트한 표현이 작업과 잘 어울려 결과적으로 매트 바니쉬를 사용하게 되었다. 매트 바니쉬는 제조 회사가 다른 제품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Marabu 제품은 Liquitex제품보다 제형이 더 점도가 높았고 Liquitex제품은 훨씬 묽은 제형이었다. 결과적으로 Marabu제품이 두툼하게 발려 내구성은 더 우수했지만 묽은 Liquitex제품은 두 차례 바르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코팅제	Liquitex 매트 바니쉬	Marabu Matlack 매트 바니쉬	Bondex 우드 스테인 perfect 900	Nabakem UC-100 우레탄 변성 아크릴 코팅제
제품 사진				
결과물				
코팅제	밀랍	르네상스 왁스	Devcon 2-Ton 에폭시	UV 레진
제품 사진				
결과물				

[표 3] 코팅 실험

### 3.2. 동그랗게 말다

#### 원기등의 변형

다음에 나오는 작업들은 부식된 금속판을 말아서 완성하였다. 변형된 정육면체에서 범위를 확장시켜 다른 입체 도형 중 하나인 원기등의 변형을 시도하였다.

원기등 또한 안정성, 균형, 그리고 완벽함을 상징하는 기하학적 형태이다. 높이감과 부피감이 있다면 정육면체보다 안정되고 기둥과 같은 무게감을 준다.



[그림 35] 두루마리 문서

(출처: <https://naver.com/>, <https://yes24.com>)

[그림 35]의 두루마리 문서는 고대 제책본 형식이 나타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원통형 형식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종이·비단·양피지 등을 청동·상아·나무 등으로 말아 만든 막대이다.<sup>27)</sup> 두루마리 형식은 연속적인 정보의 표현에 적합하다. 전체내용이나 끝을 보기 위해 서는 처음부터 펼쳐야 하는 매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간적, 공간적, 또는 개념적 흐름을 표현하는데 특히 유용하였다.

동양의 두루마리 그림이나 문서는 돌돌 만 뒤 펼치는 부분에 따라 다른 그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몇몇 두루마리 그림은 소설 속 여러 장

27) 나무위키(namu.wiki), ‘두루마리’

면을 이어지게 그려 펼칠 때마다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일종의 만화영화 혹은 영화 식으로 활용되었다. 한 번에 두루마리의 일부만 볼 수 있기에 정보나 이미지를 제한된 시점에서 제공하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공개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는 호기심과 함께 긴장감을 주기도 한다.

두루마리 형식은 문서나 작품을 열고 닫는 독특한 의식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이는 예술 작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관람자의 경험에 깊이를 추가한다. 정적인 물체더라도 그 안에 특별한 의식성이 담겨있다. 이러한 두루마리 형식이 가지는 여러 매체적 특성을 참고하여 연구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림 36] 3롤형 수동 슬립 롤링 머신

작업 진행 과정은 판을 재단하고 문양을 부식한 뒤 3롤형 수동 슬립 롤링 머신을 이용하여 말았다. 마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행하게 되면 금속의 탄성이 강해져 열풀림을 하기도 했으나, 부식으로 얇아진

금속판을 열풀림하고 다시 말더라도 취약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진행하였다. 장신구와 같은 경우에는 수동 슬립 롤링 머신으로 작업하기에 부피가 작아 지환봉을 이용하여 손으로 말거나 원기둥 모루에 대고 망치로 치며 말았다. [작품 34]의 스테인레스 스틸 브로치는 만 후 유압프레스를 이용하여 납작하게 눌러 제작하였다.

기물 작업에 초기 작품인 [작품 4]를 제외하고 바닥이 없는 형태로 되어있다. 바닥이 없다는 것은 그 기물이 무한하게 깊어질 수 있는 무한성을 보여준다. 이는 끝없는 변화가능성, 무한한 공간, 끊임없는 여정 등을 상상하게 한다. 동시에 이 형태는 불완전성을 떠올리기도 한다. 바닥이 없는 기물은 완성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기물은 발전의 여지나 성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옻칠

옻칠은 [작품 23, 28, 29, 30, 31, 39]의 작업 마지막 단계에서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첫 번째 층에 생칠을 고르게 발라주었다. 부식하여 요철이 생긴 금속에 생칠이 담겨졌다. 두 번째, 세 번째 층에는 색칠을 겹겹이 발라주었다. 건조된 후 종이 사포와 스펀지 사포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벗겨내었다. 부식이 되지 않은 비교적 평평한 금속표면 위 옻칠, 즉 색칠이 벗겨지면서 새겨진 문양이 더욱 강조되는 효과를 얻었다.



[작품 28] <Copper Brooch 1>, 적동에 옻칠, 10×15×130mm, 2022

[작품 29] <Fade Away Series II\_1>, 적동에 옻칠, 30×20×160mm, 2023



[작품 30] <Trace I, II>, 적동에 옷칠, 가죽 끈, 각 40×40×60mm, 2022



[작품 31] <Trace III>, 적동에 옻칠, 가죽 끈, 35×35×73mm, 2022



[작품 32] <Fade Away Series II\_2>, 황동, 28×82×15mm, 2023



[작품 33] <Fade Away Series II\_3>, 알루미늄, 18×75×10mm, 2023



[작품 34] <Stainless Steel Brooch I, II>, 스테인레스 스틸에 부분 금 도금,  
각 30×100×20mm, 2022



[작품 35] <Vase III>, 적동에 은 도금, 210×130×300mm, 2022



[작품 36] <From The Beauty>, 황동, 180×180×130mm, 2022



[작품 37] <Vase VI>, 적동, 백동, 130×130×360mm, 2023



[작품 38] <Vase IV>, 황동에 블랙C 착색, 140×140×200mm, 2023



[작품 39] <Vase V>, 적동에 옻칠, 300×120×125mm, 2022

## IV. 맷음말

이 작업 연구의 출발점은 감정의 이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감정의 이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니 이 모든 것이 변화에 의한 현상이라는 점에 도달하였다. 자연스레 변화하는 현상이나 그 변화에 맞서고 대항하는 나, 변화에 굴복하는 나, 적응하는 나까지 거치며 난생처음 겪어보는 변화들에 흥미와 불안을 느끼며 소통하려 하였다.

변화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넘어 변화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깨우쳐 주는 철학과 작품 사례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변화로 인한 나의 불안감은 해소되고 변화를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금속 조형물로 시각화하는 것은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변화가 지속되고 무궁한 상태를 물질적인 작품으로 완성해야 하는 모순 외에도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 부식과 판화, 그리고 입체 도형의 변형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변형된 정육면체에 대한 나의 관심과 흥미가 입체 도형의 변형으로 확장되었다. 이 외에도 형태적 특성을 이용해 발전시킬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 예를 들어, 정육면체와 원기둥 외에 다른 입체 도형인 원뿔이나 구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시도를 해보고 싶다. 또한 이 연구가 평면인 판과 그 판을 입체적으로 변화시킨 작품이 한 쌍임을 상상 가능하다면, 더 큰 변화를 주기 위해 판을 레이징하여 입체적으로 가공시킨다면 한층 더 다채로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연구의 전 과정은 마치 나의 성장일기와 같았다. 나는 나의 내면을 내비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어려웠다. 내가 담은 이야기가 온전히 언어로 구현하는 것이 나의 언어의 한계로 닿지 못할까 걱정된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제 3자의 뜻이고, 정서적 교류의 매체로 자유롭게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국립국어연구원, 『 표준국어대사전 』, 두산동아, 1999  
김용찬, 『 논문, 쓰다 』, 컬처룩, 2020  
김태희, 『 시간에 대한 현상학적 성찰 』, 필로소픽, 2014  
랄프 왈도 에머슨, 이종인 번역, 『 자기 신뢰: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 현대지성, 2021  
송석랑, 『 현상학: 시적 감각의 지성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2  
오쇼 강의, 『 서양의 봇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태일소담, 2013  
와시다 기요카즈, 『 사람의 현상학 』, 문학동네, 2017  
요시나가 요시마사, 『 괴델 불완전성 정리 』, 전파과학사, 1993  
이남인, 『 예술 본능의 현상학 』, 서광사, 2018  
전용일, 『 금속공예 기법 』, 미술문화, 2006  
츠베탕토도로프, 『 불완전한 정원 -프랑스 인본주의 사상- 』, 한국문화사,  
2016  
한국현상학회, 『 예술과 현상학 』, 철학과현실사, 2001

Ana Maria Lopez, 『 Metalworking Through History: An Encyclopedia 』, Greenwood Press, 2009

Ann D'Arcy Hughes · Hebe Vernon-Morris, 『 The Printmaking Bible : The Complete Guide to Materials and Techniques 』, Chronicle Books, 2008

Alexander Dumbadze · Suzanne Hudson. 『 Contemporary Art : 1989 to the Present 』, Wiley-Blackwell, 2013

David Benjamin Levy, 『 Beethoven, the Ninth Symphony 』, Yale University Press, 1995

Eleanor Moty · Fred Fenster, 『 Metalsmiths and Mentors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6

- Heikki Seppä, 『 Form Emphasis for Metalsmiths 』,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78
- Marthe Le Van, 『 The Penland Book of Jewelry : Master Classes in Jewelry Techniques 』, Lark Books, 2005
- Matthew Runfola, 『 Patina : 300 Coloration Effects for Jewelers & Metalsmiths 』, Interweave Press, 2014
- Tim McCreight, 『 Complete Metalsmith 』, Davis, 2004

## 논문

- 김윤아 · 김남호, 「 초현실주의 표현기법과 오브제의 표현 특성을 통한 마르텐 바스의 아트퍼니처 분석 」, 『 한국기초조형학회 』 22권 4호, 2021
- 김현숙, 「 웜베르토 보치오니(Umberto Boccioni) 작업에 나타난 시간 개념의 시각화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방경란, 「 프뢰벨 은물의 시각적 조형원리에 대한 연구 」,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 17권 3호, 2004
- 송현지 · 박영목, 「 공간의 선형 이해를 위한 기초조형디자인교육 」, 『 기초조형학연구 』 18권 1호, 2017
- 안아림 · 민동원, 「 부드러움 vs. 거칠의 경험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터치 욕구와 사회적 조정 수준을 중심으로 」, 『 한국경영학회 』 46권 4호, 2017
- 오나은 · 송오성 · 민복기, 「 금속공예에서 DLC 코팅을 활용한 색상 표현 연구: 백동과 적동 바탕 금속을 중심으로 」, 『 기초조형학연구 』 22권 5호, 2021
- 이기세, 「 이야기를 담은 기물 제작 」,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영화 · 석승민, 「 공감각의 인지요소 중 시각적 촉감에 관한 연구: 20세기 대표미술작품을 사례로 」, 『 조형미디어학 』 20권 1호, 2017

- Amy L. Thrush-Dreves, 「 Basic metalsmithing techniques: A visual guide for use in the classroom 」 , Kutztown University of Pennsylvania Master's Thesis, 2000
- Cheryl M. Bannes, 「 A Brief History of Metalworking Techniques onArmour 」 , Eastern Illinoi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84
- Galen A. Johnson, 「 Merleau-Ponty's Philosophy of Expressionism: Lawrence Hass, "Merleau-Ponty's Philosophy 」 , 『 Research in Phenomenology 』 Vol. 39, Iss. 3, 2009
- Margery Beth Rose, 「 A Metalsmith's Guide to Toxicology 」 ,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Master's Thesis, 1976
- Michael B. Riegel, 「 Etching as an Embellishment Technique in Metalsmithing 」 , Eastern Illinoi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73
- M. D. Lind, 「 Crystal Structure of Ferric Chloride Hexahydrate 」 , 『 The Journal of Chemical Physics 』 Vol. 47, Iss. 3, 1967
- R.W. Powell, 「 Thermal Conductivities and Expansion Coefficients of Water and Ice 」 , 『 Advances in Physics 』 Vol. 7 Iss. 26, 1958
- Tamara Stech Wheeler · Robert Maddin, 「 The Techniques of the Early Thai Metalsmith 」 , 『 University Museum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Vol. 18, Iss. 4, 1976

## 보도자료

김정주, 「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 '있는 그대로'를 주목하라 」 ,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 , 2000

## 웹사이트

<https://artjewelryforum.org>  
<http://bondex.co.kr>  
<https://deindeal.ch>  
<http://doopedia.co.kr>  
<https://kerysatts.pw/>  
<https://localhoneyman.co.uk>  
<https://maisondesilk.com/>  
<https://nabakem.com>  
<https://namu.wiki>  
<https://naver.com/>  
<https://officeworks.com>  
<https://pinterest.co.kr>  
<https://pmcsupplies.com>  
<https://preservationequipment.com>  
<https://takachpress.com/>  
<http://stdict.korean.go.kr>  
<http://wikipedia.com>  
<https://yes24.com>

# **Abstract**

## **Traces of Actions Encapsulated in Metal Objets d'Art**

- Focusing on Surface Etch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Three-dimensional Shapes -

Oh, Naun  
Metalwork Major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e is a common phenomenon we experience in our lives. It governs many aspects of our lives, and understanding and accepting it play a crucial role in our adaptation to the world. In an attempt to record these moments of change as traces, I have endeavored to incorporate them into metal jewelry and objets d'art.

The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change was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s of general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Heraclitus' philosophy posits that everything is not fixed but constantly undergoing change, and this insight into the continuous flux of

time brings about novelty, diversity, and growth. Such change is considered the law of nature and evidence of life's vitality. From a phenomenological viewpoint, artistic creations reflect the artist's subjective experiences and offer profound understanding through the essence of human existence and experiences. This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forms a bond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 and plays a vital role in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objects and phenomena.

The study of the artwork involved symbolizing the concept of change by creating etchings on corroded plates, then transferring those patterns onto paper in the form of prints and further transforming them into three-dimensional shapes by folding or rolling the plates. The study of the artwork illustrated the symbolization of change as etching patterns. These etchings were then transferred onto paper in the form of prints and further crafting etched plates into three-dimensional shapes by folding or rolling the plates. When folding or rolling metal, some parts of the etched patterns become obscured. Therefore, the etchings of the entire corroded patterns were retained in the prints, while the transformed appearance was shaped into basic three-dimensional forms, such as cubes and cylinder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artwork that preserves and shares the memory of change, and it aspires to become a means of abstract artistic expression.

**keywords : Change, Traces, Etching, Printmaking, Metal Folding,  
Metal Rolling**

**Student Number : 2020-25495**